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MBC <무한도전>이 대상 수상

작품상 30개 부문 33편 개인상 25개 부문 24명, 장수 프로그램 대거 수상



대상 수상자 MBC 김태호 PD와 <무한도전> 팀이 축하를 받고 있다

제42회 한국방송대상에서 MBC TV <무한도전>이 대상을 받는 등 장수 프로그램들이 대거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한국방송협회(회장 안광한 MBC 사장)는 9월 3일 오후 3시 MBC 상암 공개홀에서 열린 MBC TV로 생방송된 시상식(KBS 박은영, MBC 김정근, SBS 김환 공동 진행)에서 MBC TV <무한도전> 김태호 PD에게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대상을 수여했다(사진).

작품상 KBS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단독보도',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SBS <TV동물농장>, EBS <다큐프라임 '진화의 신비, 독', MBC <배철수의 음악캠프>, SBS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KBS <누가누가 잘하나> 등

개인상 아나운서 이재용, 라디오진행자 홍지명, TV진행자 김성주, 앵커상 편상욱 등

작품상에는 뉴스보도TV KBS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연속 단독보도', 중단편드라마 TV SBS <편지>, 예능버라이어티TV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연예오락TV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생활정보TV

SBS <TV동물농장(신동엽, 정선희, 김생민, 아나운서 장예원 진행)>, 다큐멘터리TV EBS <다큐프라임 '진화의 신비, 독', 지역교양TV 대구KBS <농촌탐구생활 됩니까?!(아나운서 진유현 진행)>, 음악구성R <배철수의 음악캠프>, 문화예술R <EBS 북 카페(김학도, 아나운서 윤지영 진행)>, 연예오락R KBS <밤을 잊은 그대에게>, 사회공익R MBC <지금은 라디오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SBS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아나운서 유영미 연출, 진행)>, 어린이 KBS <누가누가 잘하나(아나운서 한상현, 이슬기 진행)> 등 30개 부문 33편이 뽑혔다.

개인상은 아나운서상에 MBC <대한민국을 찾습니다> 이재용을 비롯해, 라디오 진행자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홍지명, TV진행자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김성주, 앵커 SBS <주말8뉴스> 편

상욱, 성우 KBS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박형욱, 작가 SBS TV <풍문으로 들었소> 정성주, 공로상 전 KBS 예능국장 고故 진필홍 등 25개 부문 24명이 수상했다. 2면에 수상소감

아나운서연합회 제2회 <안녕, 우리말 콘서트> 개최

아나운서들 '우리말 사랑 노래' 합창, '우리말 패션쇼' 모델로 나서

아나운서들이 '우리말 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우리말 패션쇼' 무대에 섰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와 KBS가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부가 후원하는 제2회 <안녕, 우리말 콘서트>가 9월 11일 오후 2시 KBS공개홀에서 열려 10월 9일 KBS 1TV로 방송된다.

이 날 윤지영 연합회장을 비롯한 8개사 44명의 아나운서들은 그룹 '부활'의 리더 김

태원 작사, 작곡, 지휘로 '우리말 사랑 노래'를 선보였고, 서기철, 신윤주, 김기만, 한상현, 조항리, 이재성 아나운서 등이 이상봉 디자이너와 함께 펼치는 '우리말 패션쇼' 무대에 모델로 등장했다. 한편 한국 홍보 전문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6월 초부터 '우리말 사랑 노래' 제작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초등 3년 이상 교과서 한자병기안 최종 결정 연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제2차 공청회에서 정책연구 더 필요하다 제안

9월 말 발표 예정이던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교과서 한자 병기안'에 제동이 걸렸다.

9월 4일 충북 청주시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제2차 공청회'에서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위원장 김경자)가 '초등학교 한자 교육의 적정성과 한자 병기 방법 등에 대해 정책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함에 따라, 교육부가 '의견

을 검토해 이를 수용할 경우 초등학교 한자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작년 9월 교육부가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등은 초등학생의 부담과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곳은 비도 여의도 발길을 막지 못했다

<춘하추동방송> 블로그 개설 10주년 이장춘 운영자에게 감사패 증정 아나운서에 관한 100여 편 기록물과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PDF 탑재한 공로

MBC 상암 신사옥 견학 시 수고한 아나운서국에도 감사패 전달

8월 25일 아나운서클럽 정례모임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정례모임이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25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열린에서 열렸다.

임국희 회장은 "비가 오는데도 많이 와 주셔서 고맙다. 황우겸, 임택근, 전영우, 박중세 고문님들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 현역들을 오랜만에 만나니 정말 기쁘다."라는 인사말에 이어 <춘하추동방송(http://blog.daum.net/jc21th)> 이장춘 운영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 10년간 아나운서에 관한 100여 편의 기록물과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인쇄 상태 그대로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 한 PDF(Portable Document Format) 탑재 탑재를 통해 아나운서들의 고락苦辣을 널리 알린 공로이다.

이장춘 운영자는 "매우 기쁘다. 80대 원로부터 20대 새내기까지 세대를 초월해 하나가 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게 늘 영광스럽다. 특히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를 제작하는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클럽회보가 <춘하추동방송>에 2011년 3월 창간호부터 전부 실려 있으니, 컴퓨터만 가능하다면 글자 크기도 조정하며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춘하추동방송>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많이 이용해 달라."라며 감격스러워 했다.

또 정홍숙 회원의 시 암송(정영복의 '해바라기') 후 MBC 견학 시 수고한 MBC 아나운서국에도 후배 사랑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지은, 김완태 부장은

<신동호의 시선집중> 녹음 관계로 불참한 아나운서국장을 대신해 '지난 6월 3일 큰 환영과 함께 정성껏 안내해준 신동호 국장과 아나운서국원들에게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전한다. 상암시대 최첨단 시설에서 일하는 후배들이 아나운서의 역량을 더욱 발휘해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받고, "클럽 선배님들의 방문이 <주간 MBC> 1면에 게재될 정도로 큰 행사였다. 덕분에 저희들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MBC 김범도 협회장이 제공한 샴페인을 들며 식사와 함께 각 방송사 소식을 듣고 근황을 소개했다. 이영호 회원은 "하와이에서 30년 방송 후 LA로 이주해 살고 있는데, 서울에 와 클럽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가까이 지내왔던 사이처럼 느껴진다. 여기 계신 고문님들과 회장님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사)물망초재단 이사장 박선영 회원은 "탈북자와 국군포로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돕는 저희 물망초재단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한다. 회원 가입을 하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차인태 부회장님, 어려울 때마다 격려해주시는 박민정 사무총장님 등 선배와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다.

연말 모임은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주최로 오는 12월 4일(금) 오후 6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릴 예정인 <2015한국아나운서대회>로 대신한다.

3면 초대석에 이장춘 인터뷰



임국희 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뜻밖이라며 기뻐하는 <춘하추동방송> 이장춘 운영자



32명으로 바쁘게 일하는 국원들이 감사패를 받고 큰 힘을 얻었다고 말한 MBC 하지은, 김완태 부장



뒷줄 왼쪽부터 지그재그로 김준우, 전찬희, 임수민, 김완태, 하지은, 원종배, 유지현, 유영미, 유애리, 최화숙, 김규홍, 채영신, 이혜옥, 황인우, 성경환, 성선경, 유지철, 박민정, 차기정, 김은영, 황량, 이영호, 윤영중, 송현식, 민병연, 김상준, 김채영, 노영인, 김경숙, 이후재, 안희재, 박선영, 이형근, 정홍숙, 이성화, 문복순, 맹관영, 임택근, 황우겸, 전영우, 차인태, 임국희

다음엔 12월 4일(금) 오후 6시 여의도 콘래드호텔 <2015한국아나운서대회>에서 만나요

제52회 '방송의 날' 특집

칼럼

TTS의 언어 합성 방송과 아나운서의 미래

김상준(전 KBS) 감사

컴퓨터가 뉴스 작성하고 언어합성기가 읽어주는 미래엔 세련된 아나운싱과 인간미로 경지에 오른 방송인만 살아남는다



동아방송예술대 초빙교수 전 KBS 아나운서실장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위원장

KBS 이사회가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KBS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필자는 이 세미나에서 요즘 방송의 지역 사투리와 비표준발음의 기자 리포트, 자기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해외특파원들에 대해 지적했다. 써놓은 대로 발음하는 문자식 발음과 자신의 의견을 훈계조로 전달하는 기상과 교통방송의 캐스터들도 많다.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아나운서들에게도 문제는 많다.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TV와는 달리 라디오 뉴

스의 경우 무시하는 듯한 오독과 더듬거림, 성의 없는 방송으로 일관하는 아나운서들이 많다는 지적을 했었다.

앞으로는 컴퓨터가 포털(portal)이나 SNS 등에 떠도는 글들을 편집해서 뉴스를 작성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뉴스를 읽어주는 TTS(Text To Speech)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것이고, 몇 년 후에는 인간미는 떨어지지만 완벽에 가까운 뉴스리딩 소프트웨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임재운, 방송문화, 2014.8.).

TTS 프로그램, 즉 뉴스의 언어합성기가 방송인들의 실 자리를 점령하는 순서를 생각해 본다. 언어합성기는 기상과 교통정보, 증권 소식 등 정보 전달 프로그램을 먼저 점령할 것이다. 그리고 아나운싱 능력이 떨어지는 방송기자들의 리포트도 일찍 점령당할 것이다.

그로부터 몇 년 지나면 아나운서들의 라디오 스트레이트 뉴스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어합성기는 일부 아나운싱은 대체할 수 있지만 리사이틀(recital)을 한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기울인 뉴스는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은 기계언어에 쉽게 점령당하지 않을 정도의 경지에 오른 방송을 해야 한다.

지난 30년간 미래 예측에 있어서 86%를 적중하면서 에디슨 이후 최고의 발명가로 꼽히고 있는 IQ 165의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1948)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는 2045년에는 컴퓨터가 사람 수준의 인공지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인류 지능의 합계를 초월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이 컴퓨터는 시적인 표현과, 농담, 빈정거림 등 기계의 한계와 언어의 모호성을 초월하는 말을 100% 이해

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조선일보, 2013.7.20.).

앞으로 2·30년 후 TTS, 즉 언어합성기가 커즈와일의 말대로 기계의 한계와 언어의 모호성을 초월하는 말을 이해하면서 뉴스를 전달하는 시대가 오면 아나운서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런 시대에도 아나운서의 위치를 고수해 나가려면 세련된 아나운싱 능력과, 인간미가 넘치는 방송으로 우위를 점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아름다운 의상과 고운 표정을 더해주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품위 있고 인간미 넘치는 방송언어를 구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편집자 주: 해방둥이인 저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광복절 기념식 사회를 보았다.

제42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

작품상 사회공익 라디오 부문 SBS 유명미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연출, 진행

평가절하 되는 노년의 삶을 아름다운 청춘으로 만들고 싶었다



다섯 번이나 아나운서상 후보로 올랐다가 정작 연출자로서 방송대상 작품상을 거머쥔 유명미 아나운서

수상 소식을 접하면서 처음 떠오른 생각은 "어찌 이런 일이?"였습니다. 파안대소가 아니라 씩 웃게 되더군요. 아나운서 생활 30년 어느덧 그렇게 되네요. 사실 앵커 시절,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에 SBS 대표로 다섯 번이나 노미네이트 되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저 대신 수상하신 분들, 다

시 한 번 축하합니다. 호호) 그래서 방송대상은 저와는 인연이 없는 상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굽은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죠. 시니어방송으로 20년. 남들은 외면했던 그 시절부터 전 이상하게도 이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복잡한 세상살이에 밀려 평가절하 되는 노년의 삶을 더 품격 있고 자존감 있는 아름다운 청춘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PD란 영역은 그런 면에서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엔지니어 역할은 생각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하더군요. 기계치를 극복하기란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아나운서란 이름은 참 매력적입니다. 멀티 플레이어가 되는 가장 가까운 지름길에 있기 때문이죠.

중고등학교 시절 제일 지루했던 급훈이 '성실, 인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 이 말의 깊이를 겨우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뛰거나 달리지 않고 느려도 황소걸음으로 유유자적하게 방송진행과 제작을 맡다보니 오늘 이렇게 귀한 상이 제게로 왔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많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라 합니다. 아나운서란 타이틀을 처음 가슴에 달았던 그 감격과 환희와 감사가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올라가는 것보다 잘 내려와야 하는 선배 행렬에서 있네요.

바쁘다는 핑계로 잘 찾아뵙지도 못하는 후배에게 늘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아나운서로서 자신의 방향성을 갖고 긴 호흡으로 길을 넓혀나가는 후배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나운서는 참으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귀한 상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상 아나운서상 MBC 이재용

〈대한민국을 찾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진행

설레던 초심 잊지 않고 휘둘림 없이 좋은 아나운서가 되겠다



1992년, 아나운서 합격 소식을 듣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 때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살면서 저절로 웃어지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지고요.

스튜디오에, 카메라에 빨간불 들어오면 긴장도 되고, 그래서 떨리고 했지만 그래도 막 설레고 그랬습니다. 설레고, 재밌고, 그래서 잘 놀았다 했던 날은, 일이, 그러니까 방송이 잘된 날이었습니다. 물론 뭐 한 자 씹었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상심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대상 아나운서상, 참 받고 싶은 상이었습니다. 저희 MBC에서 이 상을 받게 한 10년쯤은 된 것 같아서 더 의미도 있습니다만, 공적서 내라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큰 상을 주시니 기쁘고, 영광입니다.

제가 아나운서로 살아온 20여 년 동안 방송환경이나 아나운서를 보는 시각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라는 것에 대해,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 많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 자체로 설레던 초심으로 휘둘림 없이 좋은 아나운서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상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인상 TV진행자상 김성주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진행

프리랜서로 활동한 지 8년 만에 과분한 상 받아 기뻐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고 싶었던 상을 받아 기쁩니다. 방송국에 있을 때는 못 받고 그만두고 독립한 지 8년 만에 방송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두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이 그렇고, 〈냉장고를 부탁해〉, 〈슈퍼스타 K〉가 그렇습니다. 훌륭한 진행자가 많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랑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게 활동무대를 만들어주시는 동료 방송인들, 늘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부모님, 늘 아침밥을 차려주는 아내와 제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KBS 공사 창립 실무 경험이 블로그 밑거름 되었다

'청사 없는 방송국의 연봉 없는 방송국장' 별칭은 내가 받은 훈장

초대석

춘하추동방송 블로그
운영자 이장춘

1944년 항일단파방송연락운동 옥사자 이근창 선생 공적 밝혀내 68년 만에 건국훈장 추서될 때 감개무량

8월 25일 (사)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 임국희) 정례모임에서 아나운서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춘하추동방송> 이장춘 운영자가 감사패를 받았다. 지면紙面이란 제한 없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방대한 방송 관련 자료를 모아놓은 <춘하추동방송>은 2012년 다음 우수 블로그로 채택된 것으로 입증되듯 콘텐츠 제공자나 수용자 모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방송의 날을 즈음해 이장춘 운영자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방문해 블로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황인우(전 KBS) 편집장



매일 자정이 넘어 늦게 방문자 수 등 블로그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며 세계를 누비는 직업실에서 이장춘 운영자와 함께한 필자

그 동안 참 의미 있는 나날을 보내셨어요.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송 역사를 더듬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어언 10년! 바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참으로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역사는 이 땅의 방송역사와 일치하기에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나운서에 관한 글과 수많은 역사 기록물들을 <춘하추동방송>에 올리게 되었지요. 대한민국 아나운서들과 이토록 가까운 사이가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춘하추동방송> 자료가 없으면 저희 회보 발행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지요.

2011년 3월 15일,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가 발간되면서 모든 방송사료放送史料들이 공유되었고 <춘하추동방송>은 늘 한국아나운서클럽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나운서가 아닌 이장춘이 아나운서클럽에 참여하는 것이 어색함도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모이는 곳이면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지요.

행사가 끝나자마자 블로그에 올리시는 열정에 감동받고 늘 자극받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의 벽을 넘고 전·현직, 세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바다 건너, 국경 넘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한국 아나운서라는 이름을 단 분들과 얘기를 나누노라면 순식간에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지납니다. 서양화가이자 조각가이며 수필가인 이정부 아나운서가 붙여준 '청사 없는 방송국의 연봉 없는 방송국장'이란 별칭이 참 마음에 들어요.

미국에 계신 아나운서들과도 각별히 지내시지요?

미국에는 국내에서 활동하시던 많은 아나운서들이 살고 계십니다. 홍양보 아나운서는 생사불명이지만 호기수, 위진록, 유덕훈 아나운서 등 6.25 전에 활동한 원로부터 김봉구, 김영우, 서정자(성우 출신), 노시장, 장인숙, 김정태, 김영호, 정영호, 송현식, 권윤기, 홍우창, 강미란 아나운서 등이 있지요.

그리고 민재호, 장기범, 최세훈 아나운서 가족 등과 대화를 나누며 지냅니다. 미국에서 고국을 그리시는 분들은 <춘하추동방송>과 더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미주 한인방송의 시조 김영우 아나운서는 2014년 2월 은퇴하면서 방송장비는 미국 남가주대(USC)에 기증하고, 일생 모은 자료를 모두 제게 보내오셔서 방송과 미주 이민사美洲移民史 사료史料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아나운서와는 수시로 얘기를 나누고 있지요.

방송국에는 어느 직종으로 입사하셨습니까?

KBS사우회에서는 직종을 PD, 기자, 기술, 아나운서, 행정으로 분류해 놓았는데, 저는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1963년 입사해 PD, 기자, 행정직을 거쳐 전산정보실장, 업무국장, 관제국장, 제주방송총국장을 지내고 1998년 퇴직했습니다.

1973년에는 공사창립위원회에 편성되어 한국방송공사 발족 작업을 했는데, 업무 전반을 살피기 위해 지역 방송국과 라디오 중계소는 물론 고지에 있는 TV중계소까지 돌아본 것이 블로그 운영에 밑거름이 되었지요.

원래 컴퓨터를 잘하셨나요?

비밀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60년대부터 타자와 운전을 배웠고 워드를 했어요. 그러다 연세대 대학원에 교육 훈련 가 '2000년대 TV 방송'에 대한 졸업논문을 작성한 게 계기가 되어 전산정보실장 보직을 받았고, 직책상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겠다 싶어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가며 익혔지요.

블로그 개설 과정을 직접 소개해주세요요.

KBS사우회 부회장이던 2005년 4월 24일, 회원들의 마음을 연결해 주고자 엠파스(empas)에 방송 역사 등에 대한 글을 올리기를 시작해 (사)한국방송인동우회(이하 방우회) 이사직을 맡게 되면서 범위가 확장이 되었지요. 그러다 엠파스 폐쇄로 2010년 2월부터 '다음' 블로그로 옮겼습니다. 명칭은 '긴 봄', 즉 '1년 내내 봄'이라는 제 이름에서 착안해 <춘하추동방송>이라 붙였지요.

어떻게 작업하십니까?

<춘하추동방송>과 함께하는 분들과 만나고 컴퓨터 앞에서 사진과 동영상 편집, 선곡, 글을 써 올리느라 이장춘에게는 밤낮이 없습니다. 주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어제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새로운 하루를 설계하고, 미국 등 해외에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지요. 전화요금 부담이 없는 와이파이 카카오톡을 활용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무의식중에 국내 분에게도 새벽에 카카오톡을 보내 잠을 깨우는 실례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도 많으시겠네요.

항일단파방송연락운동으로 옥사獄死하신 이근창 선생이 68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을 때입니다. 옥사자 한 분을 찾기 위해 힘을 기울이던 중 2012년에 이종익이라는 분으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13살 때 서대문형무소에서 죄수의 얼굴을 가리는 갓인 용수를 쓴 이근창 선생님을 보았고 얼마 후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제가 재판기록 등 공적을 확인해 국가보훈처에 상훈 신청을 냈고, 2012년 11월 17일 제73회 순국선열의 날에 1944년에 옥사하신 이근창 선생께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지요. 아무 것도 몰랐던 세 살짜리 아들 이휘웅이 일흔한 살이 되어 그 훈장을 대신 받을 때 감개무량했지요.

올해도 그와 같은 항일단파방송연락운동을 잊지 말자는 물방비勿忘碑 행사가 (사)방우회 주최로 오는 10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KBS 본관 광장에서 열립니다.

방송 역사를 새로 쓰는 <춘하추동방송>이란 말이 과언이 아니군요.

그 말은 방송학자 강현두 교수가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아나운서 이옥경, 축구 중계방송의 원조 박충근, 해방 공간의 방송과장 이계원, 농구 중계방송의 원조 이현,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赫赫한 공적을 남긴 방송계의 큰 별 송영호, 민재호, 윤길구, 문제안, 윤용노, 전인국, 위진록, 장기범, 서명석, 조봉순. 그리고 195·60년대, 방송국에는 아나운서만 있는 줄 알았던 때의 방송사료放送史料들이, 본인, 가족·친지들로부터 <춘하추동방송> 한 곳에 생생하게 모아졌기 때문이지요.

아나운서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고, 비록 방송 내용에 관한 다소의 불평이 있을 때라도 아나운서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요. 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 여러분과 클럽회보를 읽으시는 분들, 그리고 <춘하추동방송>과 함께하는 분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의 날 축하연 지상파 4사 대표 UHD 비전 선언

한국 문화 우수성 알리고 쉽게 접하는 미디어 세상 만들어 시청자 중심 방송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한국방송협회 주최 제52회 방송의 날 축하연이 9월 2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이성배(MBC) 아나운서 사회로 열렸다.

안광한 방송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축하연에서 KBS 조대현, MBC 인광한, SBS 이웅모, EBS 신용섭 등 지상파 4사 대표는 초고선명 화질의 UHD(Ultra High Definition) 콘텐츠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 시청자 중심의 방송으로, 새로운 경제 가치와 시장 개척에 기여하겠다는 '지상파 UHD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정희화 국회의장과 황교안 총리의 축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준 위원장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건배사가 이어진 가운데, 아나운서클럽 회원 40명을 비롯한 방송인과 정·관계, 문화계 인사 등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갈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을 기원했다.

방송의 날은 1947년 9월 3일 한국이 호출부호 HL을 배당받은 날을 기념해 1963년 제정되었고, 1973년 문화체육부 주관의 '대한민국 방송상'으로 시작된 '한국방송대상'은 1976년부터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중계탑

16년차 아나운서인 제가 꼴찌, 막내랍니다

대구방송 개국 20주년 프로그램 영역 넓히고 개척하며 지역민과 함께 우리들의 이야기 만들고 있어요

〈문화로 채움!〉 타이틀만 봐도 각박한 현대인의 삶에 여유로움을 선사할 오아시스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문화생활을 향유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만 막상 채널 고정이 쉽지 않아서인지 대구에서 유일한 문화 프로그램이다. 전시, 공연 소식과 쉽고 재밌게 문화를 풀어보는 '유식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신상윤, 장진영, 김도휘, 김선희

남 무식녀 코너', 그리고 '책 읽어주는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힘주어 제작하는 코너이기도 한 '책 읽어주는 여자'가 바로 저. 99세 작가 시바타 도요의 <약해지지 마>를 시작으로 지금껏 60여 권의 국내외 좋은 책들을 소개해왔다.

매주 1회 방송 분량을 촬영하기 위해 스튜디오를 벗어나 야외며 북카페를 섭외해 촬영을 하다보면 오전에 시작했음이 무색하게 저녁이 되어서야 마무리가 된다. 긴 시간 장소를 옮겨가며, 거기다 카메라 세팅을 여러 번 바꿔가며 마치 짧은 영화 한 편을 찍듯 촬영하기는 처음이다.

프로듀서와 카메라감독, 여러 스텝들의 의기투합이 아니고서야 열악한 지역 방송 여건상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올 법도 한데, 다들 신나서 촬영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새삼스레 방송하는 보람과 고마움을 느낀다. 그렇게 같이 촬영하는 스텝들의 열정에 다시 힘이 솟고 방송에 첫발을 내디딜 때처럼 즐거운 요즘이다.

어느 지역 방송사든 힘든 여건 속에서 아나운서로서 자공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방송하는 모습을 TV 화면 속에서도, 여기 아나운서클럽회보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TBC를 책임지고 있는 4명의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이다.

낮 뉴스를 비롯해 <FM 라디오세상>, <골프아카데미>를 진행하는 아나운서팀의 버팀목 신상윤 아나운서, TBC 장수 프로그램인 <건강365>와 FM <뮤직갤러리>를 통해 아름다운 목소리를 전하는 김선희 아나운서, 그리고 동기 김도휘 아나운서와 16년 차인 내가 아직도 막내이다. 더 이상 후배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

에서 4명의 아나운서가 라디오 PD도 겸하면서 높은 편성 비율로 여러 프로그램을 맡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낸다.

특히 김도휘 아나운서는 2013년에 월북으로 잊힌 우리 지역 출신 윤복진 동시작가의 삶을 다룬 <물새 발자국>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인정받았고, 오는 10월 1일 TBC FM을 통해 <나화랑의 아리랑> 방송을 앞두고 있다. '무너진 사랑탑', '열아홉 순정'의 작곡가가 민요도 썼음을 알리는 다큐멘터리이다.

이렇게 조금씩 프로그램의 영역을 넓히고 새롭게 개척해가며 지역민과 함께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개국 20주년을 맞은 TBC, 앞으로 더 나은 20년을 다시 꿈꾸며! / 글 장진영(TBC)

2000년 4월 입사, TV (주말 8뉴스), <문화로 채움>, <열린 TBC>, FM <그대 창가에서> 진행

방 | 송 | 가 | 소 | 식



<세계미래포럼> 개최 1TV 방송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재창조의 길을 묻다'란 주제로 8월 24일과 25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KBS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라모스 호르타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세계미래학회 에이미 잘만 회장의 개막식 특별 강연을 시작으로 사회통합, 경제 재도약, 통일 한국의 길을 모색한 토론 내용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방송되었다.

착한 댓글 달기 '선플운동' 앞장서

8월 29일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선플운동본부와 선플 운동 실천 협약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순우 편성본부장,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유애리 아나운서실장과 아나운서 20명, 청소년 SNS 기자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태남 등 아나운서 13명 승진

7월 1일 직급 승진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아나운서실에서는 관리직급 박태남(사진), 1직급 임수민, 2직급급 윤인구, 이재후, 이규봉, 박노원, 2직급을 백승주, 3직급 박지현, 김승희, 유지원, 정다은, 도경완, 가에란 등 13명이 승진의 기쁨을 맛보았다.



'2015 DMC 페스티벌' 개최

20여 개 공연과 아시아뮤직네트워크, 거리축제, 컨퍼런스 등 펼쳐져

새로운 한류문화축제 '2015 DMC 페스티벌'이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상암 MBC 일원, 상암문화광장, DMS 거리 등에서 펼쳐졌다. 9월 5일 김성주와 소녀시대 티파니, 우리의 사회로 펼쳐진 K팝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개막공연 (K팝 슈퍼콘서트)를 시작으로 <라디오 DJ콘서트>, <나는 가수다 레전드>,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15>,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특집>, 13일 차예린 아나운서가 진행한 밴드와 합창 뮤지션의 공연 <상암에서 놀자>까지 20여 개 공연과 아시아뮤직네트워크, 거리축제, 컨퍼런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다.

'2015 DMC 페스티벌'은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 네이버 V'가 생생하게 전달했고, 주요 공연은 중국 망고TV를 통해 온라인으로 중국에 생중계되었다.

PC와 모바일로 쌍방향 소통 iMBC 온라인 생중계 인기



PC와 모바일을 통해 쌍방향 소통하는 iMBC 온라인 생중계가 스포츠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MBC는 김완태, 김정근(사진 왼쪽), 허일후, 김나진, 이성배, 이재은 아나운서 등을 투입해 9월까지 진행된 'AFC 챔피언스리그', 전 경기를 비롯해 8월에 열린 '2015 베이징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프로축구 K리그' 등을 iMBC 스포츠 온에어 페이지와 모바일로 생중계했다. 캐스터들이 라디오 DJ처럼 시청자의 질문에 바로 답하며 고감하고, 감정이 섞인 편파방송을 하거나 해설자 없이 방송하기도 하는데, 채팅 창에 무수한 댓글이 달리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배성재, 이경규와 함께 파일럿 프로그램 <18초> 진행

축구 중계 캐스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새 예능 프로그램 <18초>에서 MC 이경규와 '중계'라는 콘셉트로 호흡을 맞췄다. '18초'는 보통 모바일을 통해 영상을 감상하는 평균 시간을 뜻한다. 연예인들이 18초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는 영상을 만들어 가장 높은 조회수에 도전하는 파일럿(시범 제작) 프로그램이다.

김일중 퇴사로 프로그램 부분 조정

<좋은 아침> 조정식 <자기야>, <한밤의 TV연예> 김환 김주우 <생방송 투데이> 합류



2005년 공채 13기로 입사한 김일중 아나운서가 9월 7일 퇴사함에 따라 프로그램 부분 조정이 있었다.

<좋은 아침>은 조정식 아나운서(사진), <백년손님-자기야>와 <한밤의 TV연예>는 김환 아나운서가 투입되었고, 김주우 아나운서가 조정식 아나운서 후임으로 최영아, 유혜영 아나운서와 함께 <생방송 투데이>를 진행한다.



크리스천 음악방송 <JOY4U> 개국

9월 14일 가을 개편 단행

크리스천 음악방송 <CBS JOY4U>가 9월 14일 개국했다. CBS의 인터넷 라디오인 <Rainbow 레인보우>의 세 번째 채널로 스마트폰과 PC에서도 들을 수 있다. <CBS JOY4U>는 국내외 CCM과 찬송가, 경배와 찬양, 정통 가스펠, 고전 교회음악, 성가, 목상음악 등 크리스천 음악의 모든 장르를 24시간 방송한다. 프로그램은 박명규, 이명희, 송정훈 등 CBS의 대표 아나운서과 최인혁, 송정미 등 CCM계 대표 찬양사역자, 배우 이성재 등이 진행한다.

또한 CBS 표준FM(98.1MHz)이 9월 14일 가을 개편을 단행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부활하고, 전임 박재홍 아나운서가 저녁 8시에 신설된 <박재홍의 오늘 하루>를 맡았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저녁 6시 30분으로 방송시간을 옮겼고, 아침 7시 30분, 정오, 저녁 6시에 종합뉴스를 방송한다.

장주희, 홍보실장 마치고 복귀

표준FM <뮤직 플러스> 진행



아나운서부장을 거쳐 홍보실장으로 활동했던 장주희 아나운서가 2년 만에 방송으로 돌아왔다. 7월 1일부터 표준FM(98.9Mhz) <장주희의 뮤직 플러스(월~토, 12:00~14:00)>를 진행 중이다.

출산 휴가 후 복귀한 최혜림 <토요 모닝와이드> 3부 MC 맡아

출산 전까지 <주말 8시뉴스> 메인 앵커로 활약했던 최혜림 아나운서가 복귀한 후 <토요 모닝와이드> 3부(07:40~08:45) MC를 맡았다. 박상도 아나운서와 함께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더욱 따뜻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김윤주 복직, 백원경 휴직

김윤주 아나운서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가을 개편에 맞추어 현업에 복귀, 시사자키의 주말 판 <김윤주와 오늘을>을 맡았다. 앞으로 6개월간 육아기 단축근무로 일한다. 또 음악FM(93.9Mhz) <올댓 재즈>는 5년간 진행하던 백원경 아나운서가 9월 28일부터 휴직에 들어감에 따라 9월 14일부터 유지수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다.



신임 윤정식 사장 취임 청주MBC 사장 출신 전 KT 부사장



7월 27일, 신임 윤정식(60) 사장이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OBS 경인TV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힌 윤 사장은 1983년 춘천MBC 기자로 출발해 1991년 MBC 본사로 전입, 보도제작국과 홍보심의국 차장을 지냈고 iMBC 총괄이사와 청주·충주 MBC 사장, KT 부사장과 미디어허브 이사를 역임했다.

9월 14일 부분 개편 실시 보도 프로그램 지역성 강화

9월 14일부터 보도 프로그램의 지역성 강화를 중심으로 부분 개편을 실시해 뉴스 시작 시간이 5분 앞당겨지고 주요 뉴스 명칭과 진행자들도 바뀌었다. <뉴스 M 경기-인천(오후 7시 40분)>은 출신육아휴직 후 8월 31일 복귀한 이자연 아나운서, <뉴스라인 인천-경기(오후 10시 40분)>과 <뉴스&이슈>는 김준호, 유진영 아나운서, <오늘의 월드뉴스>는 김용재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또 6월 29일 신설한 <행복부동산 연구소(오후 3시 55분)>는 최지혜 아나운서가 맡았다.



한글박물관과 MOU 체결 11월부터 아나운서 음성으로 전시 설명



tbs 교통방송(대표 성경환)과 국립한글박물관(관장 문영호)은 7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부터 아나운서의 표준화된 음성으로 전시 설명을 제공하게 된다.

나선홍 9년 만에 새벽 생방송 하차 <라디오를 켜라> 김보빈에게 넘겨

9월 14일 가을 개편에 따라,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시청자의 사랑과 관심 속에 9년 동안 tbsFM <생방송 라디오를 켜라>를 진행한 나선홍 아나운서가 <주말이 좋다(토, 일 오후 6시 10분~8시)> 프로그램으로 이동했다. 후임은 2010년에 입사해 <TV 상담 받고 대학가자>를 진행했던 김보빈 아나운서로, “밤 프로그램에서 새벽 방송으로 옮겨 힘들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드리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대교구 네 번째 보좌주교 손희승 베네딕도 주교 서품식 생중계



8월 28일 오후 2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의 집전으로 서울대교구 명동주교좌성당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손희승 베네딕도 주교 서품식을 생중계했다. 지난 7월 14일 손희승 주교가 임명됨에 따라 서울대교구는 2006년 임명된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2013년 임명된 유경춘 티모테오, 정순택 베드로 주교 등 4명의 보좌 주교를 두게 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1주년 맞아 <평화나눔음악회> 라디오, TV로 방송 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나눔 음악회>가 8월 22일 서울 명동 계성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탤런트 최재원, 양미경의 사회, 김지현 아나운서 장내 진행, 지승신, 김현주 아나운서가 내레이션을 맡아 8월 29일 라디오와 TV로 방송되었다. 또한 제15회 PBC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가 김지현 아나운서 진행으로 8월 18일 오후 8시 명동성당에서 열렸다. 2000년에 결성한 PBC 소년소녀합창단은 국내외 공연과 각종 자선음악회, 월 1회 명동성당 주일 성가 봉헌 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신임 아나운서 7명(남5, 여2) 3개월 연수 후 9월부터 실무 투입 광주시사 남현용 서울 복귀

4월 1일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시작되어 서류전형과 논술, 성경, 극동방송 상식, 영어, 국어 등 필기시험, 영어 인터뷰, 카메라 테스트, 인성면접과 최종면접을 거쳐 방송직능 7명(남5, 여2)이 6월 1일자로 임용되었고 3개월 연수 후 9월 1일자로 실무에 투입되었다. 방송사역에 함께할 신임 아나운서 겸 프로듀서는 중앙사 서울의 정웅, 광주 방인준, 영동 이승현, 울산 장찬희, 부산 진가희, 목포 정서경, 창원 최재영 등 7명으로 이들은 극동방송의 59년 역사와 설립목적을 비롯해

다큐멘터리와 DJ 프로그램 제작은 물론 방송진행자로서 청취자와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지사에서 근무하던 남현용 아나운서가 9월 1일자로 서울로 복귀해 <교계 전망대>를 맡고 있다.



서울 정웅, 광주 방인준, 영동 이승현, 울산 장찬희



부산 진가희, 목포 정서경, 창원 최재영, 남현용 복귀



창사 25주년 맞아 특별 생방송 <참 좋은 오늘입니다> 편성



1990년 5월 1일 서울경기지역 라디오방송(FM101.9MHz)으로 출발한 불교방송이 2015년 현재 전국 7개 네트워크, 13개의 라디오 주파수의 라디오방송과 2008년 개국

한 BBS TV로 시청자, 청취자를 만나는 종합 미디어 매체로 성장했다. 불교방송은 창사 25주년을 맞아 방송 포교의 터전이 될 사옥 건립을 새로운 목표로 세우고 전법발원 9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 <참 좋은 오

늘입니다>를 정기적으로 편성했다. 지난 5월 1일 이후 7차례 방송된 프로그램의 주요 진행을 아나운서들이 맡아 동참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운데 신자들과 불교계 인사들의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규향(전 KBS)의 발음 이야기 9

바른말살천문동시민협의회 제공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말 제대로 하려면 '100단어 표준발음 지키기 운동' 벌여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음성언어(방송 언어)가 고사枯死 직전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 원인은 ‘한국어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어의 특성을 외면한 발음교육 부재에 있다. 이는 읽기가 쉽다는 지나친 한글 우월주의 때문이었다. 해방 후 전승국戰勝國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전리품戰利品(?)으로 여겨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두 나라를 문화 식민지로 만들려는 속셈을 갖고 있었다. 맥아더 사령부는 미국 교육사절단을 1개월간 일본에 파견해 줄 것을 본국에 요청한 후 일본의 교육자들에게 일본어보다는 영어가 민주주의적 시민정신과 국제적 이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세뇌교육을 시켰다. 이 무렵 언어로서 한자의 후진성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문맹률을 조사한 결과, 미군정 당국자의 예상과 달리 일본의 문맹률이 훨씬 낮았다. 일본의 어문 관계 관리와 학자들은 일본어의 특징을 제시하면서 한자를 지켜내

는데 성공한 후 일본으로서는 치욕의 해인 1945년이라는 숫자를 살려 상용常用한자를 1945자로 정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미 군정청 학무국장인 미국 유학파 오천석 박사가 약 보름 동안 도쿄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미국의 사절단이 한국의 문교 책임자에게 일본과 같은 영어 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개연性蓋然性이 충분하다. 미국 육군총사령부 포고 1호는 ‘군정 기간 중 영어를 공용어로 함’이었다. 조선어학회(한글학회)는 일제 탄압에서 36년 만에 막 햇빛을 본 국어가 또다시 위기를 맞자 단기 국어교사와 초중등학교의 정교사를 양성하는 한편 ‘한글 첫걸음’ 등의 교재를 만들며 국어를 지켜냈다. 한편 우리말에서 일본어의 잔재와 함께 국어의 70%를 차지하면서 귀화어歸化語로서 한국어가 된 한자를 무리하게 몰아내기 위해 갑성적 애국론을 앞세우며 한글 전용의 명분을 얻게 된 것이다. 오늘날 영어의 광풍은 이러한 사실史

한국어의 운명과 아나운서의 위상



實에서 비롯되었다. 과연 온 국민과 모든 학생과 직장인들에게 반드시 영어가 필요한 것인가? 필자의 경우 재직 시 방송 현업과 외국의 중계 업무 수행과정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다. 외국어의 수준은 자국어의 수준과 정비례하는 법이다. 영어의 광풍이 사라진다면, 가정경제가 좋아지면서 또 다른 창조 경제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3년 후인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한다’는 정책을 교육부에서 발표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유보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자漢字를 [한자]가 아닌 [한:짜]로 읽는 것은, 한자는 표의문자인 동시에 성조聲調가 따르는 표음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발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표준어인 서울말이 거부반응의 대상이 되는 것은 타도他道の 배타적 애향심 때문이다. 일본어는 음독音讀과 뜻으로 읽는 훈독訓讀이 있어 우

리나라의 한자 익히기와 비교해 두 배 힘든 언어임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락樂의 경우, ‘풍류 악, 즐길 락, 좋아할 요’로 발음되는데 비해 일본어는 무려 일곱 가지로 발음되기도 한다.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현역 아나운서들이 지키지 않는 표준발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다면 아나운서 직종에서는 어떤 답변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표준발음을 무시하는 일부 아나운서는, 자존 상실의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KBS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 경향은 음성언어 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있었다. 표준발음 교육문제는, 뜻밖에도 어렵지 않다. 필자가 빈도수가 높은 낱말을 간추려본 바 1000단어 전후였다. 앞으로 아나운서들이 각 전담 분야(뉴스, 중계, MC, 내레이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100단어 표준발음 지키기 운동(?)’을 펼쳐 마땅하지 않겠는가.



회 | 원 | 동 | 정

공저 <3인 아나운서 이야기> 출판기념회 개최 이규향, 이장우, 김승한 세 실장의 대화록 '방송 그리고 술과 낭만에 대하여'



이세진, 이계진 (전 KBS)

8월 29일 오후 6시 30분 여의도 열빈에서 이종태 회원의 사회로 88명의 가족·친지, 동료

가 함께한 가운데 <3인 아나운서 이야기(하루현)>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부제 '방송 그리고 술과 낭만에 대하여'처럼 두 저자가 지난 1년간 이규향, 김승한, 이장우 세 아나운서 실장을 모시고 술자리를 함께하며 채록한 아나운서 세계의 근대 역사를 다룬 대화록이다. 임국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30인에 대한 책도 나왔으면 한다. 아나운서 세계의 아름다운 선·후배의 모습이다."라고 했고, KBS 아나운서 출신 광운대 김성호 교수는 "복합적인 형태의 구술체로 낸 첫 역사서로 유익하고도 재미있다."라고 평했다.

직접 만난 14인을 평한 <누가 지도자인가> 출간 후 대전에서 북콘서트 개최



박영선(전 MBC)

7월 15일, <누가 지도자인가(도서출판 마음의숲)>를 펴내고 8월 29일 대전 청소년위

캔센터에서 사회와 북콘서트를 열었다.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 정치인 9명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직접 만난 국내외 지도자 14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북콘서트에서는 이철희 정치평론가가 사회를 맡아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대전 명예시민이기도 한 안철수의원이 초대 손님으로 출연했다. 1982년 MBC 입사한 박회원은 1년 뒤 기자로 전직했고 2004년 17대 국회에 진출한 3선의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지냈다.



최세훈 아나운서 유고문집 발간 3남매가 서울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목소리는 심성의 가락'이라 했던 고故 최세훈 아나운서의 자녀가 미국의 아버지 날인 6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의 음식점에서 유고문집 <아빠, 아버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30년 전 미국으로 이민 가 회계사로 활동하며 시를 쓰는 만팔 철미, 내과 의사지만 영어로 소설, 희곡을 쓰는 창훈, 대전에 거주하는 승훈 씨 등 3남매는 <춘추동방송> 이장춘 운영자의 주선으로 가족·친지, 지인과 아나운서클럽 전영우, 박종세 고문, 김인숙, 장금자, 운영중 회원 등 40여 명과 함께 '까다롭고 완벽주의자며 여성적인 섬세함을 갖춘 다정다감, 다재다능한 시인이자 가시고기 아빠'였던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자신의 시집도 선보인 최철미 씨는 다음날 이규향, 김성호, 이계진 회원과 함께 남산 중앙방송국 자리를 방문해 고인에 대한 정담을 나누었다.

1954년 KBS 입사, <라디오게임>, <채지문답> 등의 명사회자였던 최세훈 아나운서는 1964년 MBC로 이적해 아나운서실장을 거쳐 전주와 대전MBC 상무, 마산MBC 이사로 재직하다 1984년 2월 11일 51세로 작고했다.

9월 19일 '물망초 후원 음악회' 개최



박선영(전 MBC)

물망초학교 개교 3주년과 국군포로송환위원회 2주년을 맞아 물망초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 9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MoA(서울대학교미술관)에서 열리며 서울대 음악대학이 후원한다.

KBS사우회 여성위 초대 위원장 맡아



이인숙(전 KBS)

KBS사우회가 여성 회우의 참여 확대와 지원을 위해 7월 1일, 여성 이사인 이인숙 회원을 준비위원장으로 위촉한 후 24일 이사회를 거쳐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성위는 9월 18일 발대식을 거쳐 정식 출범한다.

관악FM <추억의 음악다방> DJ로 재능기부



채영신(전 KBS)

9월부터 재능기부로 관악FM(100.3MHz) <채영신의 추억의 음악다방(토 오후 2시~3시)>을 진행하고 있다. 정년퇴임을 기념해 자녀가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주최한 8월 27일 회고연에서 100여 명의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은 채 회원은 서울 정심초등학교 교감으로 8월 26일 근정포장을 받고 8월 31일자로 32년의 교직생활을 마감했다.

해방둥이로 TV조선 <이슈 해결사> 출연



박찬숙(전 KBS)

광복절을 맞아 8월 14일 TV조선 <이슈 해결사 박대장(장원준, 박은주 진행)>에 배우 엄앵란, 경제 평론가 배병휴와 함께 출연해 해방둥이이자 메인 뉴스 최초 여성 앵커로서 '격동 70년'을 돌아보았다.

부산 가산문학상 우수상 수상



김병래(전 KBS)

시 '내가 사랑하는 세 여인' 등으로 부산가산문학회가 주최하는 제2회 가산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1969년 입사, 2004년 퇴직 후 시와 수채화를 벗하며 지내는 김 회원은 작년 9월 <내가 사랑하는 세 여인>을 펴냈다.

프리랜서로 KBSN <청춘하라> 진행



황수경(전 KBS)

올 4월 퇴직 후 7월 25일 방송된 KBSN <청춘하라(토 오후 10시 40분)> MC를 맡아 프리랜서로서 첫선을 보였다.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광희와 함께 진행하는 청춘 꿈 지원 프로젝트이다.

특임 이사로 <MBN 8시뉴스> 진행



김주해(전 MBC)

MBN 특임 이사로 영입되어 7월 1일부터 <MBN 8시뉴스>를 진행하고 있다. 1997년 MBC에 입사, 2007년 MBC <주말 뉴스데스크>의 단독 앵커로 활약했던 김주하 회원은 올 3월 MBC를 퇴사했다.

부디 편안한 세상에서 영면하소서!



고故 송재원(전 DBS) 선배 조사

(갑자기 길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동아일보 외엔 알리지 못했다는 송재원 선배님 사모님의 전화를 6월 말에 받았습니다. 클럽 회원들에게 부음을 알리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일도 인터넷을 검색해 '송재원 동아투위 위원 별세 3월 4일 0시 51분 강동경희대병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4년 5월 27일 문자 :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참석하기 어렵군요. 강의가 열 시쯤 끝나서요. 죄송합니다. 금년 회비 낼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과 박 총장의 건투를 빕니다.

2009년 6월 63빌딩에서 있었던 김동건 회장님 취임식에서 처음 만난 송재원 선배님! 아무도 알아볼지 못한 송재원 아나운서를 자리에 안내해드린 것이 첫 대면이었다. 김동건 회장님의 첫 출발이 동아방송이었다는 인연으로, 신문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겠다는 말씀을 뒤에 전해 들었다.

그 때부터 회비를 꼬박꼬박 보내 주신 송재원 선배님! '한 번 아나운서는 영원한 아나운서'라는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다. 1967년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출발하여 1975년 제작 파트에서 방송생활을 마감하셨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학원에서 TIME지 강의를 하셨던 송재원 아나운서. TIME지 강의를 하려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며 새로운 단어도 알아야 해서 아직도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라며 해맑게 미소 지으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고려대학교 재학 때는 학생운동으로, 동아방송 재직 시에는 동아광고사대로 굴곡 있는 시절을 보내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 가르치며 나이를 잊고 있다."고 나직하게 말씀하시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먼 마른 체형에 조용조용한 부드러운 목소리의 송재원 선배님.

가시는 길에 동료 아나운서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늦게 지면에서나마 작별인사로 대신합니다. 부디 편안한 세상에서 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박민정(전 MBC) 사무총장

6.25 맞아 2주간 서울 방문



위진록(전 KBS)

6월 23일부터 2주일간 서울을 방문했다. 도착 직후 YTN 방송 6.25 인터뷰 촬영을 비롯해 자서전 <고향이 어디십니까>

딸과 함께 출연한 유영미, 강영은 후배와 함께

를 자비 구입해 국내 130개 도서관에 기증하고 영화화를 위해 시나리오 작가를 면담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7월 5일에는 아나운서클럽 박민정, 이정애, 황인우 등과 함께 대학로에서 강영은, 유영미 아나운서가 출연한 연극 <크리스마스 패션쇼>를 관람하며 마중환을 즐겼다(사진).

클럽 회원 10명 스마트폰 운용 교육 받아



KBS사우회

가 주최하고 KT가 지원하는 '아나운서들을 위한 스마트폰 운용 교육'이 7월 7일 오전 여의도

KBS 별관 10층 사우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규홍, 김상준, 박영웅, 범효춘, 윤광순, 이병혜, 이혜옥, 정도영, 황량, 황인우 등이 참가해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혔다.



Zoom - in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대변인 유지현(전 SBS) 회원

새로운 것을 교류하고 나누는 일 하고 싶어요

아나운서 출신으로 영어, 불어를 구사하며 호감 가는 태도로 주목받는 유지현 대변인. 인천아시안게임(2014.9.19.~10.4.)에서 해외 언론을 담당하며 국제 스포츠 외교계에 깊은 인상을 남긴 그녀가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2015.7.3.~7.14.)에 이어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2015.10.2.~10.15.)에서도 대변인으로 맹활약 중이다. 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김윤석 조직위 사무총장이 “국내외 934명의 취재진과 세계 각국의 손님맞이에 분주했던 조직위 유지현 대변인의 활약도 대회의 성공 개최에 한 축이 됐다.”고 극찬했을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민간 외교관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과 풍성한 가을을 맞고 있는 듯하다.

실제로는 일하느라 바빠 광주에서도 별로 더위를 느끼지 못했어요. 8월 초 서울 출장 와서야 비로소 무더위를 맞보았으니까요. 8월 27일 광주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자대회 수기 심사 등 마무리 작업으로 8월 말일까지 광주에서 보냈고, 곧바로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가 보내준 차로 경북 문경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군인 트럭에 올라타고 보니 그제서 실감이 나더군요. 7월부터 같이 일하자는 연락을 받았지만 제가 계획했던 일이 있어 망설이다가 8월 하순이 되어서야 마음을 굳힌 상태였거든요.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 큰 아들이 국방부에서 주최한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에 참가했던 게 어느 정도 작용했지요.

| 계속해서 스포츠에 관한 일을 맡고 있는데...

대학 때부터 86, 88을 비롯해 국제대회 자원봉사를 많이 했고, 대통령배 축구대회는 우리말과 영어 사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나운서 할 때도 피겨스케이팅, 볼링, 에어로빅 등 스포츠 중계도 적잖이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전에 정성일 선수라고, 세계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그 선수의 경기를 많이 다루었어요.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때는 전북 무주에 내려가 중계를 하기도 했고요. 대규모 국제행사가 대부분 스포츠 대회다 보니 뜻하지 않게 기회가 계속 주어졌던 것 같아요.

| 경력이 무척 화려하다.

이화여대에서 불문학 전공, 영문학을 부전공 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매스컴을 공부하다가 1991년 12월 SBS 공채 1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10년간 방송했습니다. 감사하게도 1999년 아나운서클럽상, 2000년엔 <리얼 코리아> 진행으로 우수 MC상을 수상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의사인 남편의 미국 유학을 계기로 2001년 휴직을 신청하고 다섯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저도 유학가, 학업과 업무로 체류가 길어지는 바람에 이 기회에 '스테이지 2'를 새롭게 열어보자고 생각하고 2003년에 퇴사했습니다.

| 인생 1막이 아나운서 생활이었다면 2막은 본격적인 외국 살이?

거기서 둘째 아들도 낳고 뉴욕대에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석사와 국제회의·이벤트 매니지먼트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한인방송 뉴스 앵커 일도 했습니다. 공부하고 일하고 아이 키우며, 술한 날을 밤새우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학업을 마치고는 문화 올림픽을 다루는 국제기구 선임 연구원과 소수자少數者를 돕는 비영리 NGO, 국립단체, 유엔 워크숍 등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며 동시에 MBC 뉴욕 지사에서 2년 가까이 경제 기자로 <투데이 세계경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 SBS CNBC 개국을 계기로 다시 고국에서 '스테이지 3'를 시작하자 마음먹고 돌아와 경제 기자 겸 앵커로, 또 뉴욕 특파원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글로벌 경제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지요.

| 아나운서, 기자, 국제회의 전문가, 어떤 목표가 있었나?

그냥 '성실'이 몸에 배었다고나 할까요? 늘 시간을 소중하게 쓰려고 했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매 순간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하자'란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마치 텃밭 게임처럼 제가 했던 일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모양새가 된 것이지요.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가톨릭신자로서 '이건 무슨 부르심일까?'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할까요? '스테이지 3'를 계획할 때, '사회와 인류를 위해 기여하겠다'는 명제는 있었습니다. 굳이 목표가 있다면, 새로운 것을 교류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 <2014인천아시안게임>부터 얘기해보자.

미국에 있을 때인 2014년 봄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시간 날 때 해야겠다 싶어 지원서를 넣어두었습니다. 귀국 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에서 연락이 와 기자회견과 해외 언론을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전문 인력도 다 뽑은 상태에서 나중에 저를 발굴하게 된 셈이라, 저도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하다 보니 실상은 프레젠테이션이나 데일리 브리핑까지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예정에 없던 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기대 이상의 평가가 따라줘 저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는 어떠했나?

올 3월 초 조직위에 합류해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끝내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었어요. '메르스와 태풍, 북한 참가 여부'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무사하게, 저비용·고효율로 잘 치러져 흐뭇했고, 제가 관여했던 세계 대학생 LTE방송국 유니브로 운영 등 새로운 도전도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선수, 조직위, 자원봉사자, 광주 시민들 모두 열심히 한 결과지요. 큰 그림으로 보면, 저는 '광주가 다시 한 번 선택되었다'고 생각해요. 광주 시민들이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 광주사태의 시련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을 누렸다고 봅니다.

|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군인, 군대는 결국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1995년 이탈리아 로마를



시작으로 군인들이 4년마다 모여서 우정을 나누고 인류애를 실천하는 평화의 축제입니다. 제6회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위원장 김상기, 김관용)가 10월 2일부터 15일까지 문경을 비롯한 경상북도 8개 시군에서 펼쳐지는데,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돼 의미가 크네다 역대 가장 큰 규모로 121개국 8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경북 문경과 영천, 근처 충북 괴산 등 세 곳에 선수촌을 만들고 8개 시군 분산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또 비용을 줄이고자 세계 최초로 문경 선수촌을 야영지처럼 이동식 숙소인 카라반으로 만들었고, 9월 7일 서울에서 첫 선을 보인 솔저 댄스, 주관 뉴스채널 선정 등 처음 시도하는 게 많습니. 각국 대표단이 군복을 입고 입장하는 것도 장관이요. 스포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대회이니 아름다운 계절에 꼭 한번 오셔서 '힐링' 하고 가세요.

| 타지 생활이 계속되는데 가족의 반응은 어떤가?

전 무엇보다 제 가족에게 충실하려고 해요. 그 동안 제가 가족을 먼저 생각해 더 좋은 기회를 놓친 적이 있는 걸 남편이나 아이가 알기에 제 결정을 믿고 따라주지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남편에게 먼저 상의하는데, 때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중학생인 둘째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아프지만 어쩔수 없어요? 서로 감내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고, 부모님의 지원 덕분에 잘 해나갈 수 있으니 그 점을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 아나운서클럽 회원들에게 한 마디!

클럽 모임에 가서 처음 대선배님들을 뵈었을 때 어떤 향기가 느껴졌어요. 선배님들은 아나운서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오신 것 같아, 좋은 본보기로 제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아나운서란 직업은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우물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객관적인 눈을 갖고 역량을 잘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 황인우(전 KBS) 편집장

| 알림 |

고맙습니다

9월 10일까지 입금



클럽 발전 기금 내 주신 분



축하합니다

- 김초롱(MBC) 10월 18일(일) 오후 5시 역삼동 라움에서 동갑내기 법조인과 혼인
- 박태남(KBS) 10월 3일(토) 오후 5시 30분 KBS신관웨딩홀에서 딸 원진 양 혼사
- 조건진(KBS) 9월 19일(토) 오후 5시 30분 KBS신관 웨딩홀에서 딸 혜경 양 혼사
- 유애리(KBS) 9월 5일 아들 박준우 군 혼사
- 김지문(전 KBS) 8월 16일 아들 민기 군 혼사
- 서은선(전 MBC) 8월 16일 아들 이동호 군 혼사
- 백두현(febc) 8월 12일 득녀 이지민(CBS) 7월 15일 득남
- 오연중(KBS) 6월 26일 득녀 흥원기(OBS) 6월 8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 조영숙(전 KBS) 8월 29일 모친상
- 강재형(MBC) 7월 17일 병부상
- 김은영(CBS) 7월 16일 부친상

수고하셨습니다

- 김일중 9월 7일 SBS 퇴사
- 김경화 8월 7일 MBC 퇴사

수필

나의 호위무사 김대호 아나운서에게

노老 아나운서가 MBC 아나운서들에게 보내는 편지

황우겸(전 KBS) 고문

6월 3일 MBC 상암 신사옥 견학 시 아나운서 선배라는 인연으로 불편한 나를 편안하게 안내해준 신동호 국장과 후배 아나운서들에게 고마움의 글을 씁니다. 특히 나를 호위무사처럼 끝까지 돌봐준 김대호 아나운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 날 나는 MBC의 최신 시설과 사옥의 위용에 자랑스러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옛날과 달리 잘 정돈된 아나운서실에서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KBS TV 개국 준비요원과 초대 아나운서실장으로 일하여 보았던 나는 금석지감에 또 한 번 구시대 사람임을 절감하였습니다. 1951년에 입사해 공무원 아나운서 신분으로 일하던 내가 오죽하였으면 신문에 "인기만 먹고는 못 산다"란 성명서를 내고 1963년에 남산에서 하산, 퇴직하였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아나운서는 현직이든 전직이든 영원하다'는 건 나의 인생역정에서 겪은 인생관이요, 철학입니다. 이 말을 꼭 당신 같은 좋은 후배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 자 적어 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랑스러운 천직天職 아나운서입니다. 그러나 일시적 인기와 매명賣名에 도취되어 인간성이나 품위, 무엇보다도 고귀하고도 소중한 선후배의 정과 단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산천초목이 변하여도 우리들 세계의 우정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나운서의 자격은 소멸되고 맙니다. 이는 MBC 아나운서들에게 전하는 고마움의 메시지이며 부탁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후배 아나운서들의 활동에 한없는 성원을 보내며 귀사貴社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신동호 국장과 김대호 아나운서와 맺은 깊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김대호 아나운서는 거동이 불편한 황우겸 고문에게 휠체어를 가져 와 견학이 끝날 때까지 정중히 모셨다.

꽃을 한 송이 가진 사람들 한 묶음 모이니 향기가 피어오르더라

이성화(전 TBC)

지난 6월 3일 상암동 MBC 신사옥을 처음 가보게 되었다. 아나운서클럽 제8대 임국희 회장님의 수고로 36명이 현관에 모이니 과거 이 나라 방송의 주역들이 총집합한 것 같은 시간의 화려함을 느꼈다. KBS, MBC, TBC, CBS, DBS 등 반세기 전에서부터 최근 퇴직 사우들까지 어우러지니 꽃

한 묶음이 보이지 않는 향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듯했다. 손자뻘 되는 현역 아나운서들이 마중을 나와 반겨주며 우리로 하여금 4·50년 전 에너지 넘치던 청춘 시절의 스튜디오로 시간여행을 하게 해 준다. 누가 청춘을 인생의 꽃이라 하였으며 누가 아나운서를 방송의 꽃이라 하였던가?

그 시절엔 몰랐다! 많은 세월 지나고 나니 그 말은 맞더라. 상상을 해본다. '지금 여기 36명이 모여서 서로 명함을 주고받는다면 각양각색의 직업이 있겠지. 긴 세월 지나는 동안 다른 길에서도 성공한 그 분들에게 지냈던 직함 중에서 가장 즐거운 추억을 꼽는다면 어디에 찍을까? 아마 아나운서가 아닐까?'하고 내 마음을 기준해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전옥수, 박종세, 이성화(필자), 이영혜, 이정애, 정홍숙, 박성희, 임택근

답을 내 본다. 아나운서는 마이크 앞에서 '준비된 방송 내용을 종합해 마무리하는 책임과 소화능

력이 있다'라는 긍지가 바로 언제나 마음속에 '꽃을 한 송이 가진' 기쁨의 모습으로 내 벗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떤 기사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림, 물건 등을 나열하면서 기쁨이 보이는 표정을 관찰해보니 꽃을 볼 때 표정이 제일 밝아졌다는 내용이 있었다. '꽃을 한 송이씩 갖고 있는' 우리들 전·현직 아나운서들이여! 살아가면서 현실은 복잡할 수 있으나 마음속 마이크 꽃에서는 언제나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소서. 아울러 광복 70주년을 맞는 동안 우리는 여성 대통령도 보고 아나운서클럽의 여성 회장도 본다. 모든 힘의 근원 여성들의 앞날이 평안하기를 기원한다.



동천재활체육센터

D.C.S

실내빙상경기장

- 장애인, 비장애인 스케이팅 정규강습 및 개인강습(피겨,스피드)
- 초,중,고 단체강습 및 CA강습
- 클럽 대관
- 일일입장

http://www.dcsports.co.kr
☎ 02-949-9114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8길 41(구)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8-1

광고주 모집

초, 중, 고 학생을 위한 제품 (ex. 유제품, 학용품...등)

* 광고비는 세계 혜택이 가능합니다.